

## 내적치유를 위한 묵상 - 1

- 김형석 목사/ 1994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낮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렘17:14)

당신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라파(Rapha)는 「고치다」, 「치료하다」 「완전히 수선하다」 「회복시키다」 「온전하게 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50:2에는 「의사」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 라파」이심을 출애굽기 15:26에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또한 영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이시라면 그분은 전에도 「여호와 라파」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 라파」이실 것입니다.

당신은 어그러지고 상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영역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라파이신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치료의 출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지으시고 조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 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당신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온전케 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

### \* 주님과 진정한 만남

슬프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변뇌하였도다 (렘8:18)

말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말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쩔인고  
(렘21~22)

우리는 「내적치유」를 의식하기 이전부터 「내적치유」를 필요로 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속상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해 왔고 「마음이 상한다」는 표현을 자주 써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의식하기 전부터 우리의 속(안)은 그렇게 상해 왔었고 상해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상한 속,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할 때마다 그것이 팔자려니, 그것이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아픈 마음을 억누르고, 상한 속을 감추며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한 속은 더 크게 상하기만 했고 상한마음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처럼 아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픈 마음은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억누르고 감춘다고 해서 속상한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적치유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속상한 것을 믿음 안에서 치유받고 해결받는 것이 내적치유입니다.

우리의 속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의 장기와 폐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성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우리의 속이 상해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이 왜 상하게 되었는가도 아십니다. 우리의 속상한 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상한 것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치유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속상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당신의 팔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생동안 아픈 마음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의 속상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

**\* 치료받지 못한 내백성**

당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주에 묵상한 구절(렘8:21~22)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당신은 이렇게 외친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죄로 인해 상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처한 고통과 상처를 보고 번민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말 내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의 상태-상처와 아픔-가 치료받을 수 없을 만큼 중(重)한 것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상함을 해결할 아무런 처방책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가장 비통하게 만든 것

은 그들이 상함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과거의 상처나 상한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침받지 못할 마음의 상함이 나 상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고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아무 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경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4:12)**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미8:8)**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요 도구인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믿습니까? 시 107편 19~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힘이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치유의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의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치유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능력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으면서도 능력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자체가 곧 능력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따로 있고 능력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고, 치유의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능력을 베푸시며 기적과 치유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민23:19). 그리고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마8:13).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으며, 병든자를 고치셨습니다(마8:16).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하셨습니다(마8:26).

말씀이 곧 능력인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히4:12).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수술하는 날선 치유의 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아온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말씀의 위력을 확실히 믿는 믿음말입니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낫겠나이다」

\* 출처 - 온누리신문 / 1994. 8.7~9.4